

특허는 전투 병력이다



이승종

(현) 특허청 대변인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제40회 행정고시합격

특허청 대변인으로서 고정식 청장님을 수행 한지도 벌써 10개월이 되었다. 바쁘고 힘든 일정 속에서 청장님의 철학과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부담이 마음을 짓눌렀지만, 언론과 방송 관련하여 수행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일명 특허 전도사(?)로서 청장님이 보여주신 특허에 대한 고견에 감탄과 공감을 하면서, 그 내용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 글로 옮겨본다.

21세기 지금은 특허를 둘러싼 지식재산권전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어 기업들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되고 있다. 특허전쟁에서 승리한 기업은 시장을 독점하나, 패배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 당하거나 군소기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강력한 지식재산권 확보는 시장에서 공격과 방어를 위한 기업의 생존전략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삼성전자의 “No Patent, No Future” 속에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제 초점을 돌려 질문을 하고 싶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특허를 획득하고자 하는가?

우매한 질문 같아도 여기에 엄청난 키(Key)가 있다는 것을 분쟁을 당해본 사람만이 사후적으로 통감한다는 데 슬픔이 있다. 미리 알고 대비했다라면 하고 후회한들 이미 때는 늦으리.

간단하게 답하면, 특허전쟁의 시대 특허는 장식물도 회사의 홍보물도 아닌 전쟁을 위한 창과 방패로 처음부터 설계되어야 한다. 즉, 분쟁을 전제로 특허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특허는 과연 창이나 방패로 잘 만들어져 있는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개발(R&D)에 많은 투자를 했고 특허 보유 건수도 많았던 어떤 기업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특허경영을 잘 한다고 나름대로 자부도 했고 자랑도 했던 기업이다.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연차료도 아낌없이 납부했다. 드디어 국제시장에 개발 제품을 내놓으려 하자 시장에서 기술 분쟁 조짐이 보였다. 사장은 자신의 많은 병력(특허)을 돌아보면서 뿌듯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이 벌어지자 자신의 병력들이 제대로 힘 한번 못 쓰고 쓰러지는 꼴을 보고 화가 나고 분통이 터졌다. 자신이 보유한 특허가 창과 방패도 아닌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특허는 잘못되면 회사를 말아먹기도 한다. 전쟁에서 힘 못 쓰는 특허는 회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장은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하고서야 터득한 것이다.

그럼 특허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당연히 강하고 돈 되는 특허로 만들어야 할 것이며, 분쟁을 염두해서 명세서 및 청구범위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좋은 특허를 확보한다는 것은 업종 경쟁자 측면에서는 엄청난 제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순수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효심판을 비롯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해 공작을 펼치게 된다.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때 내 권리를 확실하게 지키려면 처음에 작성된 명세서 및 청구서에 허점이 없어야 한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충실하고 내실 있는 명세서 및 청구범위 작성은 누구나 가능한 일인가?

아니리는데 딜레마가 있다. 발명가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 전공분야의 뛰어난 변리사의 조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전문 변리사를 고용할 정도의 회사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나 개인은 여기서 암담해진다. 그래서 강하고 돈 되는 특허를 획득하는데 조력할 수 있는 변리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강한 특허는 발명가와 출원인, 변리사가 협력했을 때에만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하지 말자. 싸게 비지떡이라고 소위 덩핑으로 출원서를 양산하는 변리사를 만나 특허를 획득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 많이 봤다. 변리사 시장에서 역선택을 피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이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피와 땀으로 개발한 발명과 기술에 특허라는 울타리를 치자. 울타리도 허술한 울타리가 아니고 튼튼하고 강한 그런 울타리를 쳐서 나중에 불청객의 월담을 결코 허용치 말자. 특허는 전투 병력이다. 방어부대인지 공격부대인지 반드시 자신의 정체성을 떠들록 하자. 그래서 분쟁상황이 발생하면 강한 돌파력으로 전쟁터로 나갈 수 있는 창과 방패를 만들자. 돈 되며 튼튼한 특허를 통해 21세기 지식재산권 전쟁에서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그려본다.

| 발명특허 2009. 7

